

1976년

회고 座 談

회지 “건축사”를 중심으로

일시 : 1976. 12. 11. 12:00시

장소 : 본회 회의실

참석 : 회장 이 규 복

사회 : 편찬위원장 김 두 섭

편찬위원 김 인 석

“ 김 진 일

“ 이 경 회

“ 이 문 보

“ 유 경 철

필 자(회원) 최 창 규

기고자(회원) 황 일 인



사 회 : 공사 바쁘신중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편찬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자리를 회지“건축사”를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편달을하여 주시는 회원 두분을 모셨다는데 큰 의의가 있는줄 믿습니다. 격이없으신 말씀을 많이 주시면 “건축사”지의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장님께서 그간 느낀 신점과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회 장 : 감사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우리 “건축사”지를 여러분께서 간접직접으로 지원해 주셨고 또 이자리도 그러한 뜻으로 마련 될줄 믿습니다. 본인이 외부로부터 많은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회지“건축사”가 많은 발전과 그 질이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로지 여러위원 제위와 필자, 기고자 여러분의 힘입은 소치라고 본인은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건축사”지가 완전히 성숙한 경지는 아니므로 부단히 노력이 기울여져야 될줄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나아가 세계적인 건축사지가 되도록 편달 바랍니다. 이것은 여담입니다만 1977년 본회 사업 계획중 외국의 교수진도 초빙하여 국제적인 규모의 세미나도 갖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1976년을 보내면서 우리 건축사지를 위한 건설적인 좋은 말씀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격이없이 부탁드립니다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철 :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방담식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시기를 위원직에 머물면서 피부로 느낀 사람중 한 사람으로 회지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더 우리 “건축사”지는 회원위주의 회지로서 면모를 갖추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건축사지에 참여하는 범주는 열손으로 꼽을 정도의 한정된 몇몇 분만의 기고처럼 인식되었고, 현실이 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회원과 밀착치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봅니다.

회원들이 깊숙히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다시 말해서 회원들의 투고를 적극 유도해서 회원의 회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니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기동력과 편집인원의 증원이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문보 : 저도 지금 말씀하신 유의원과 함께 “건축사”지 편찬에 오래 참여 하여온 사람으로서 또 지난 1년을 회고하게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을 되돌아보면 많이 정돈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한편 아쉽고 꼭신년에는 실천해야겠다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유의원 말씀대로 회원과 밀착해야겠으며 1976년을 종합분석해보면 기고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어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회원들의 기고율은 25% 정도며 회원 코-너 등에 국한된 느낌인 것입니다. 비회원의 원고로 그 대종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회원과 거리가 멀다는 결론인 것입니다.

비회원의 기고 내용도 그 주류는 연구 논문으로 되어 있었고 76년 하반기 부터는 비교적 실무에 관한 정보가 많이 게재 할애 됐다는 점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작품면으로 보면 해외 작품 소개와 회원 작품으로 볼 수 있는데 회원 작품이 우대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고에서 오는 차이도 발생 되리라 믿습니다만 최선을 다한 회원작품 우대는 계속 모색되어야 할 줄 압니다.

사 회 : 해외 작품과 회원작품 편집관계는 실무자로 부터 자주 듣는 문제로서 편집과정 원고의 빈약에서 (특히 사진) 오는 것으로 알며 해외 작품과 같은 대담한 편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점은 양해 해 주셨으면 하며 그렇다고 노력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능동 취재를 목표로 77년에는 더 좀 진취적인 방법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이문보 : 제작비와 비슷한 예산이 무형투자라도 배로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유경철 : 회원의 입장에서 특히 작품을 기고 하시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황선생님

황일인 : 편집 멤버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실무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품을 기고 한다는 과정은 공통된 의견이겠습니다. 마는 도면작성은 그런대로 될 줄 압니다만 그러나 사진 제작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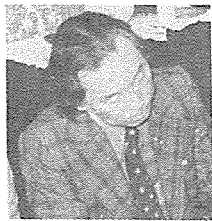
들다고 봅니다. 회지 “건축사”에 게재할 수 있는 사진원고는 건물사진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직업적인 기사가 동원 되지 않는한 멋진 원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인석 :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물 사진은 특히 전문 기술이 요한다고 봅니다.



이경희 : 외국의 경우 건축사진은 전문 분야로서 취급되고 있습니다. 전담원을 양성하는 것도 연구 과제라 봅니다.

유경철 : 회원들에게 남은 것은 회지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좋은 작품을 발굴 희망 있는 앞날을 약속하는 뜻으로도 각 지방지부에 산재하는 우수 작품을 능동 취재해서 빛을 보도록 노력해야 될줄 알며 지방별로 많은 회원이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최창규 :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필자의 한사람으로서 우선 참여 해야 하겠다는 회원들의 의욕이 문제인것 입니다.

회원들의 참여 의식을 일깨우게 할려면 우선 자극이 필요 하 리라 생각 합니다.

벽두에도 여담으로 잠간 말씀 드렸읍니다만 우리 회원의 수가 이제는 상당수의 대가족으로 무궁 무진한 저력을 지녔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같은 대가족이 회지 “건축사”를 멋있고 알차게 꾸미지 못한다면 되겠습니까. 특히 회원 코너 같은 난은 숨은 개인의 취미 같은 것 무궁무진 하리라 믿고 발굴 방법이 문제겠읍니다. 본인도 추천 하기도 하고 여러 위원들께서도 추천하시면 좋은 글이 많이 나올줄 믿고 작품 사진 원고 관계는 본인도 늘 느끼고 있는 분야로 카메라맨의 양성이 시급하여 그 기술은 역시 직업적인 수준에 육박 하는 기술이 확보되어야 할줄 압니다.

회 장 : 전찬 위원장과 의논해서 방향을 설정 실천토록 하겠읍니다.



황일인 : 3 단체 외에도 건축 잡지가 많이 출간되고 있는데 그 기선을 우리 “건축사”지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뒤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회지도 면(PAGE)를 늘렸으면 합니다만, 그리고 회원 작품에 대한 편집 경향을 좀더 우대하는 방향(면할애)을 연구 했으면 합니다. 물론 공평의 원칙이 있겠읍니다만 작품에 따라 면할애를 안배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사 회 : 원고 기고 규정상 회원 작품은 평등하게 취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외로 작품 성격상 대작이라고 생각되는 작품은 역시 그 면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작품 선정은 과거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었든것을 75년도 부터는 약간 그 기준을 완화시켜 되도록 게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으나 역시 어느 수준에 미달되는 작품은 곤란 하다고 봅니다.

이문보 : “건축사”지를 독자층이 건축사 회원에 국한시켜 생각 해서는 안될줄 압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 건축과에 송달하는 회지를 학생들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드러다 보기 때문에 적어도 작품이 이루어질 때 까지에 올바른 DATA를 많이 상세하게 편집 게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김인석 : 회원 작품의 빈곤이라 듣고 있으나 사실은 그 원고 제작 과정에서 오는 고충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의 입장에서 작품 원고를 제시하자면 보통 성의로서는 어렵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같이 작가에게 원고 제작을 100% 의뢰 하기에 원고가 입수키 힘들 것입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역시 회원 작품은 능동적인 수집 방법이 좋을 줄 압니다, 물론 여건이 여의치 않겠지만.

이경희 : “건축사”지의 성격 형성이 중요 하리라 봅니다. 보다 중요하다고 느낀점은 역시 회원에게 새로운 기술 정보, 작품 소개일 것입니다.

즉, 능동적으로 작품을 발굴해서 작가의 의도 건물평가(건물이 건축된 후 사용자에 의해 어떻게 사용 관리되고 있나) 건축기술 구조등의 평가 내용면에서 뚜렷한 핵심이 되는 것이 있어야 되리라 봅니다. 다른 곳에서 구상 못하는 것을 해서 우리 건축계 발전의 일익을 담당해야 할 “건축사”지로 발전을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사 회 : 지난 한해 동안도 회지 “건축사”를 위해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회지 “건축사”가 이 정도로 발돋움 한것도 역 위원 제위와 기고자 필자 여러분들의 성원으로 이룩됐음을 다시한번 이 기회를 통해 감사 드리며 계속 아낌없는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오랜 시간 대단히 감사 합니다.